

BASF-YPC, DMF 3만톤 증설!

중국, 아시아 총수요의 50% 초과 ... 2005년 생산돌입 예정

BASF-YPC는 중국 난징의 IPS(Integrated Petrochemical Site)에 건설되고 있는 DMF(Dimethylformamide)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1만톤에서 4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중국의 DMF 수요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아시아 시장 전체 수요의 50%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.

BASF-YPC는 독일의 BASF Aktiengesellschaft와 중국의 SINOPEC 5대50 합작기업이다.

DMF 플랜트는 현재 세부기술공사에 들어가 곧 필수원료인 Methylamine과 Syngas(합성가스)를 생산하는 IPS Verbund Production 체계에 통합될 예정이다. DMF 플랜트는 2005년 초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.

DMF는 합성피혁(Synthetic Leather), PAN(Polyacrylonitrile), Spandex Fiber 등의 생산과 제약이나 농산물 가공에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용액이다. DMF는 석유화학제품 공정과정에서 추출 에이전트(Extract Agent)로도 사용된다.

BASF-YPC는 양쯔강 주변 220ha 상당의 부지에 Ethylene 60만톤 크래커 및 9개의 다운스트림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데, 총 29억달러를 투자하는 중국 최대의 Sinopec-German 합작 프로젝트이다.

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이미 시작됐고 예정대로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. 2005년 상업적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170만톤의 고품질 화학제품과 폴리머를 생산해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29>